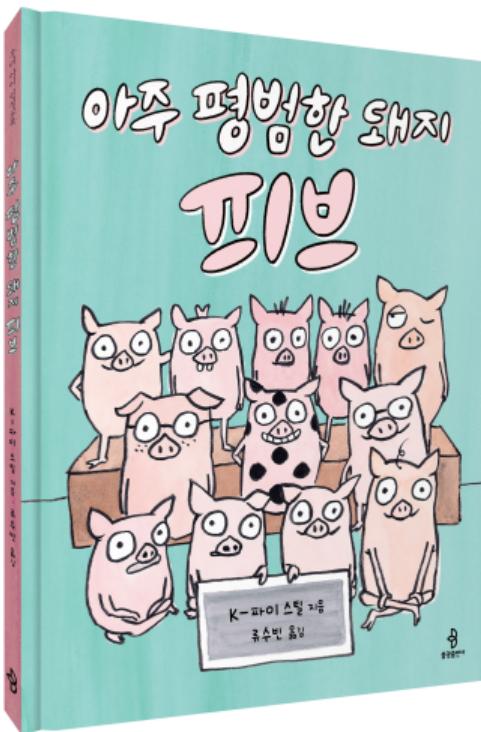


## 『아주 평범한 돼지 피브』 독후 활동지



K-파이 스타일 글·그림 | 류수빈 옮김

불광출판사 | 40쪽 | 초등1~2학년 | 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21

“

‘평범하다’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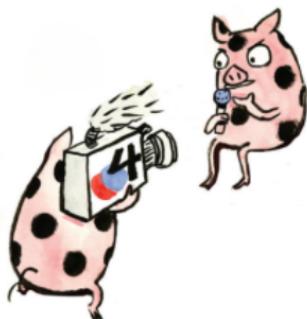
차별과 편견에 대해 자연스럽고도 깊이 생각해 보아요!

”

활동1

# 주인공과 친해지기

피브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해요.  
피브는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많지요. 각 그림이 나타내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아래의 박스에서 찾아 써 봅시다.



우주 비행사      예언가      작가

정비공      의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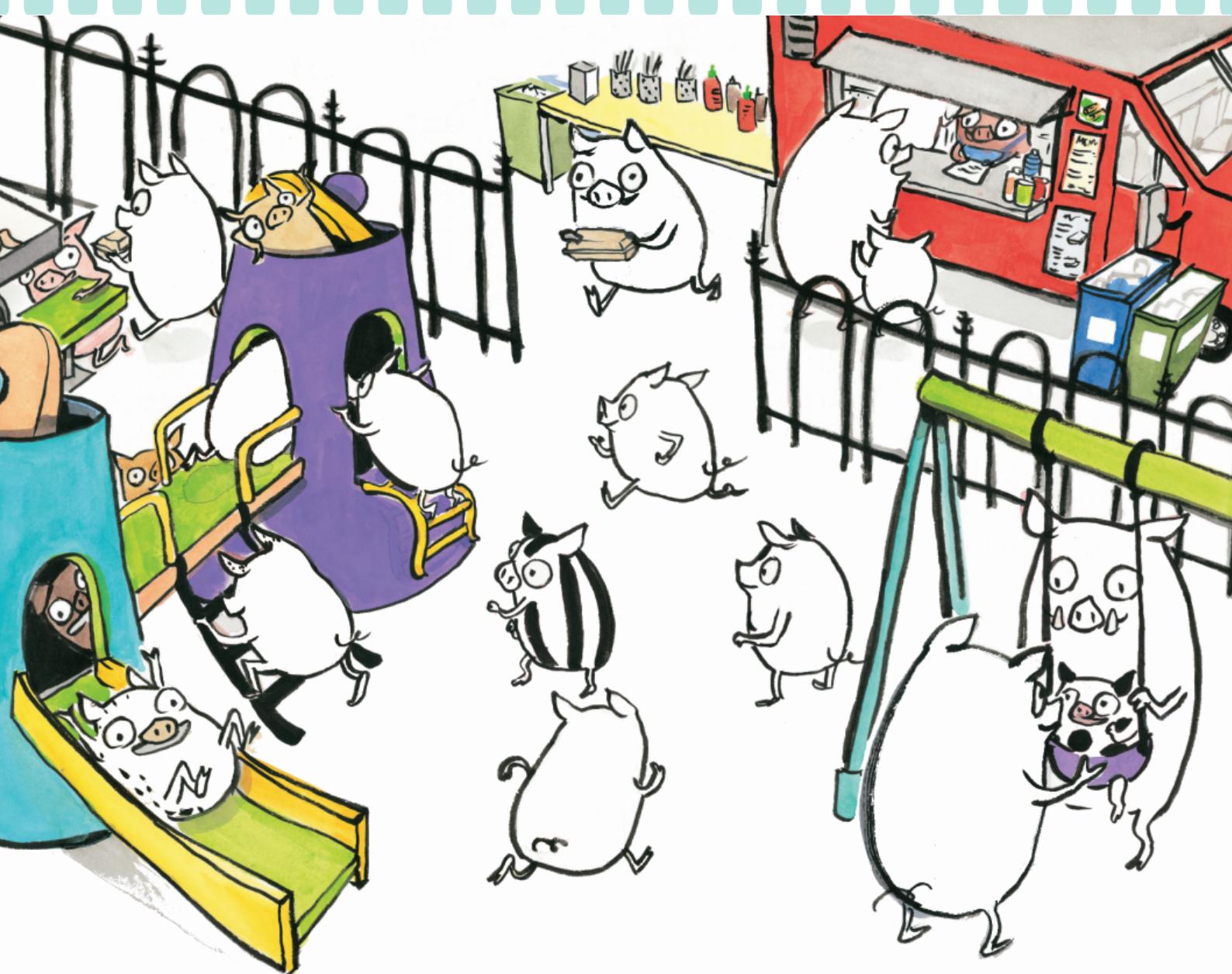
## 활동2

# 멋지고 평범한 돼지들

엄마와 함께 대도시로 나들이를 간 피브는 그곳에서 다양한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음식과 다른 놀이를 하는 돼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제각각의 모습으로 평범하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과 무늬로 아래의 돼지들을 멋지게 그려주세요.



### 활동3

##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세상

평범하다는 것은 뭘까요? 남들과 똑같은 것이 평범한 걸까요?

그렇다면 '가장 평범한 것들'로만 이루어진 '가장 평범한 세상'을 상상해 봅시다.  
가장 평범한 얼굴, 가장 평범한 놀이, 가장 평범한 옷차림, 가장 평범한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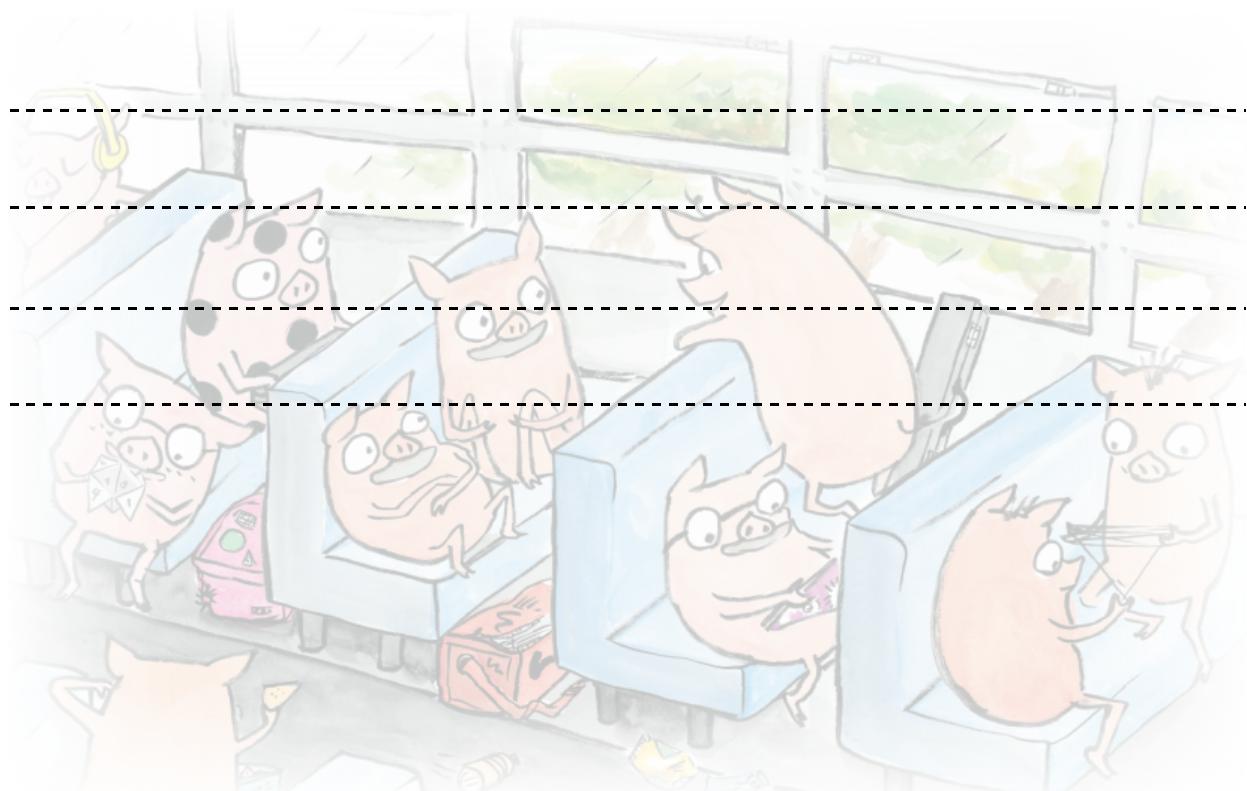
- 여러분이 떠올린 가장 평범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에 펼쳐보았나요?  
그렇다면 그 세상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2. 친구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상상한 세상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살고 싶은 곳, 행복한 곳이었나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세상'을 잠깐 구경한 소감을 써 보세요.
- 
- 
- 

3. 다음은 『아주 평범한 돼지 피브』의 마지막 페이지의 글입니다. '서로 달라서 모두 평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봅시다.

이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피브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달라서  
모두 평범하게 느껴졌답니다.



#### 활동4

## 이것도 차별일까?

1. 피브는 학교생활 속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해야 했어요.  
책의 장면을 보고, 이 장면이 왜 피브에게 차별과 편견의 경험인지  
피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설명해 주세요.

1. "피브, 너 도대체 뭘 먹고 있는 거야? 냄새가 정말 고약해!"



예) 피브의 도시락은 피브의 가족들이 즐겨먹는 음식이에요. 나라마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문화 차별이에요.

2. "저 분은 너를 돌봐 주시는 분이니?"  
"저희 엄마예요."



3. "우리, 집 그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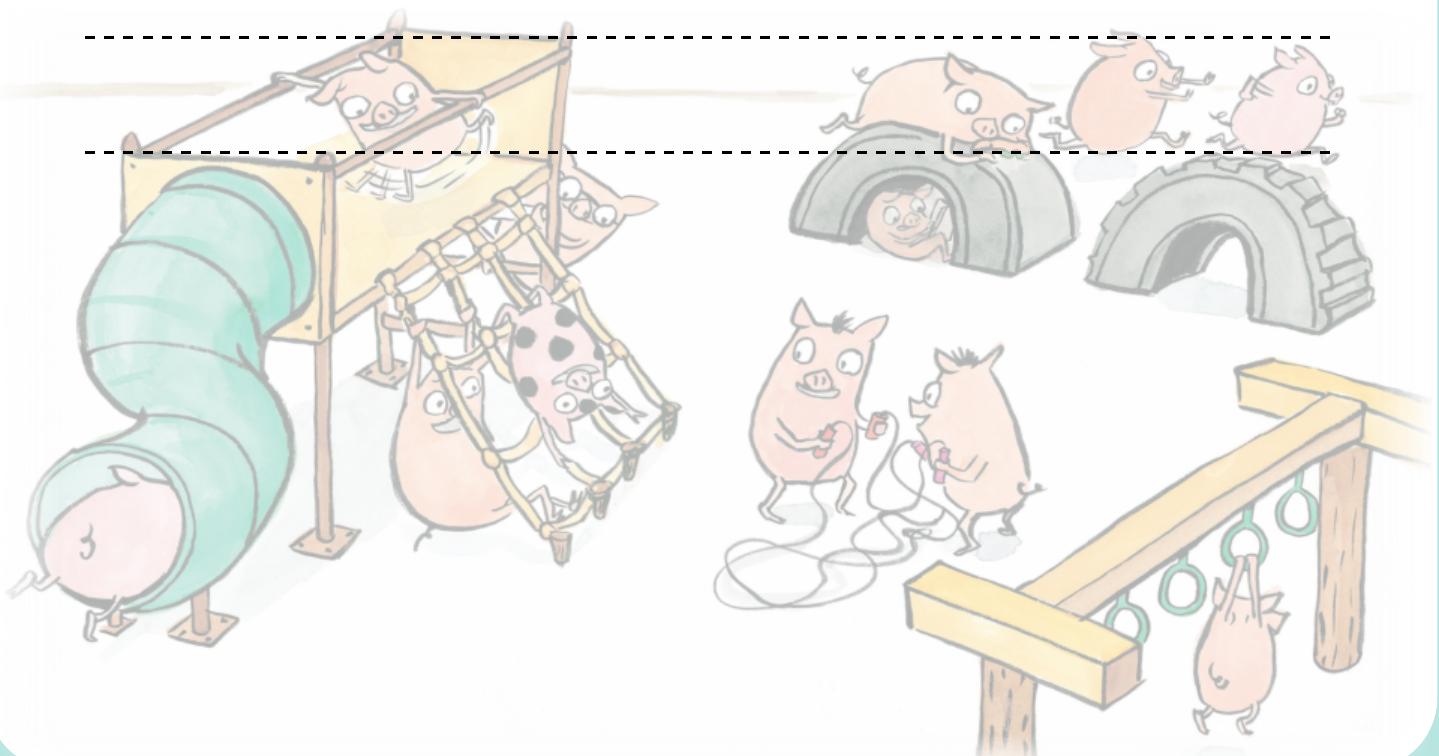
-----  
-----  
-----

2.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써 보세요.

그것이 차별과 편견인 이유도 함께 써 보세요.

'이것도 차별일까?' 하고 헷갈리는 경험이 있다면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 활동5

# 나를 말하기

자꾸만 차별적 발언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공 피브처럼, 한 번은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죠.

질문에 답하며 차별에 맞서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피브는 도시에서 그동안 먹어 보지 못했던 이상한 음식을 먹는 돼지를 만납니다.

피브는 그 돼지에게 전학 온 친구에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지요.

그러자 그 돼지는 피브에게 어떤 대답을 했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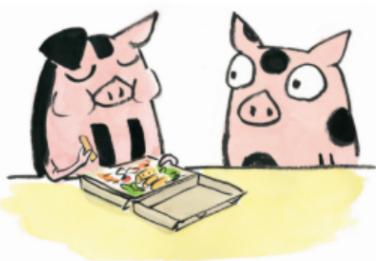
---

---

2. 도시에 다녀온 다음날, 전학 온 친구가 또다시 피브에게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고

놀렸어요. 하지만 피브는 이제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나요?



3. 누구보다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너는 이상해'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아봅시다.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무기가 될 거예요.

### 3-1. 나에 대한 질문들을 써 봅시다.

(예시)

-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는 어떤 곳인가?
-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할까?
-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뭘까?

---

---

---

---

### 3-2. 위 질문들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에게, 또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